

발달장애인 병원 이용 쉽게...의사소통 매뉴얼 발간



정부가 24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이 아플 때 어려움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이용 정보

보건부, 일반진료·건강검진·응급·치과치료 등 4가지

당사자용-의료진용 동시 제작...상호 이해·소통 지원

를 쉽게 설명한 책자를 펴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 21만2000여명, 자폐성 장애 2만8000여명 등 총 24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 262만명의 9.2%로 인지와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심한 장애(중전 1~3급)에 해당한다. 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하고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치료 등 4가지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의료 이용에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명서를 제작한 것이다. 설명서는 당사자용과 의료진용으로 구분해 당사자용은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 지부터 접수하는 방법은 물론 아프지 않을 때도 병원에 가 미리 치료하고 의사와 자주 만나기, 장애인 주치의 신청하기, 진료 수첩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의료진이 발달장애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진료 시 치료 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한 의료진용 설명서도 제작했다. 설명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해당 의료분야 의료진 면담, 장애인복지관 직원 등의 검토를 거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그림 전문 화백 등이 참여해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해 관련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별도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업무상 작성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공표한 제4유형 저작물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으로 이용, 변형 등 2차적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신안군,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추진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 선정...10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신안군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상 데이터 측정 시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 유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노하우와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국비 지원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

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8월부터 사업 홍보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하시는 어르신에게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한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혈압계·혈당계, 체중계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전담 운영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24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취재본부



전남복지재단, 온라인강의 종사자 역량강화

실시간 화상 연결 통합사례관리 교육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신현숙)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강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사회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나섰다. 재단은 시·군회망복지지원단,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강의로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재단은 교육대상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화상연결 방법을 안내하고, 비대면 온라인교육 경험이 풍부한 광주대 정희경 교수를 초빙해 총 6시간의 교육을 마쳤다. 서선욱 기자

곡성군,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16억 3천만원 확보

전남 도내 군 단위 유일

곡성군이 2020년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하 '복지전달체계사업')에 최종 선정돼 16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복지전달체계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했으며, 심사를 거쳐 5개 시도와 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군 단위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단 2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곡성군이 이를 올렸다. 전남 군 단위 지자체에서

는 곡성군이 유일하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사업비가 지원된다. 곡성군은 사업비로 2020년 5억 4천만원, 2021년 10억 9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각종 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곡성=김평휘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NEW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